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다비치’의 강민경 주말극 여주인공

여성듀오 다비치의 강민경이 SBS TV 새 주말극 ‘웃어요 엄마’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고 소속사 코어콘텐츠 미디어가 31일 밝혔다.

‘아내의 유혹’ ‘천사의 유혹’의 김순옥 작가가 쓰는 ‘웃어요 엄마’는 딸의 성공만을 위해 끝없이 딸과 대립했던 독재자 같던 엄마가 불치병에 걸린 딸을 위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려는 이야기다.

강민경은 극 중 톱탤런트 신달래 역으로 캐스팅됐다. 엄마의 뜻에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듯하지만 안으로는 굳은 심지와 가족에 대한 연민, 한 남자에 대한 순정도 함께 지닌 캐릭터다. ‘웃어요 엄마’는 ‘이웃집 웬수’ 후속으로 11월6일 방송된다.

‘제빵왕 김탁구’ 이 영 아

“시청률 내기에서 첫회는 30%에 걸었고, 최고 시청률은 50%에 걸었어요. 그만큼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영아(26)는 당차게 말하며 빙글빙글 웃었다. ‘버섯돌이 머리’를 한 조막만 한 얼굴 가득 웃음이 번지니 보는 이가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KBS 2TV ‘제빵왕 김탁구’에서 팔봉제빵점의 하나뿐인 손녀이자 절대 미각을 지닌 제빵인 양미순 역을 맡은 그는 시청률이 44.9%까지 치솟은 이 드라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저희 드라마는 아무래도 연장해야 할 것 같은데 안 한다네요. 펼쳐놓은 이야기가 많고 할 이야기도 많은데…. 팀워크는 또 얼마나 좋다고요. 처음부터 대본이 기가 막혔어요. 폭력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저는 대본을 보면서 그런 점은 느끼지 못해요. 그저 매회 ‘너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뿐이에요.”

드라마의 인기 비결을 묻자 대답이 막힘없이 이어졌다.

“우리 드라마에는 조연이 딱히 없어요. 작가님이 모든 캐릭터를 고루 다 살려주시며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잖아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쳤다면 시청률이 이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저희 드라마야말로 오케스트라 같은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출연진의 역할이 중요하고 거기서 나오는 앙상블이 멋지잖아요.”

양미순이 이영아를 만나면서 어떻게 됐을까?

“처음에는 미순이가 까칠한 외동딸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제가 맡으면서 털털해졌고 보이시해졌습니다. 그래서 쇼트커트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 다행이에요. 제가 머리가 빨리 자라는 편이라 촬영하면서 이 머리 유지하려고 열 번은 커트를 한 것 같아요. 이 드라마 끝나고도 당분간 이 머리 스타일을 계속 해볼까 해요.”

그는 극 초반보다 살이 좀 붙었다. 대체로 여배우가 촬영하면서 살이 빠지는 것과 정반대다.

“초반보다 살이 3-4kg 정도 붙었어요. 초반에 너무 살이 빠져 보기 안 좋다는 지적이 있어 다이어트 신경 안 쓰고 세끼 잘 찾아 먹었더니 다시 볼이 좀 통통해졌네요. 촬영장에서 제가 제일 잘 먹어요. 촬영용으로 주무른 빵은 지저분하다고 다들 안 먹는데 전 그것도 다 먹어요. 이번 드라마로 빵 만드는 것을 처음 해봤는데 제가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주원(구마준 역)이도 잘하는데, 시윤이는 진짜 못 만들어요.(웃음)”

밝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연기하는 그에게 다른 출연진들은 부러운 시선을 던진다. 그러나 그도 연기의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촬영장에서 다른 배우들이 ‘미순이 너만 좋겠다’고 해요. 그런데 마냥 좋지는 않아요. 남들은 걱정이나 고민 없이 연기하는 줄 알지만 사실 미순이가 연애 한번 못해본 캐릭터라 탁구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에서는 힘이 좀 들어요. 저도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하며 미순이를 연기하는데 다들 그렇게 안 봐주시네요.(웃음) 하지만 뭐, 제가 좀 낙천적이긴 해요. 학창시절 적성검사를 하면 매번 ‘낙천적’이라고 나왔어요.”

그는 바로 그런 성격 덕분에 ‘제빵왕 김탁구’를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지매’ 이후 2년을 쉬었어요. 그런데 전 2년이나 흐른 줄 모를 정도로 잘 지냈어요. 연기를 안 해 조급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조급해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 작품이 왔어요. 만일 급한 마음에 이런저런 작품을 했다면 스케줄이 맞지 않아 이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영아는 이 드라마를 끝나면 다양한 활동을 해볼 계획이다.

“예전에는 연기자가 연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능프로그램 등 다른 활동도 많이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다 경험이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많은 경험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더욱 성장한 이영아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여전사’ 수애

드라마 ‘아테나:전쟁의 여신’서 액션연기
“새롭고 재미있다…내게 맞는 옷 찾은 느낌”

SBS의 대형 첩보 액션 드라마 ‘아테나 : 전쟁의 여신’을 통해 액션 연기에 도전하는 배우 수애가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최근 열린 쇼케이스에서 수애는 “‘아이리스’를 너무 재미있게 봤다”며 “액션 연기가 주어지면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제의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아테나 : 전쟁의 여신’은 지난해 방송된 KBS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이야기의 근간을 따온 스핀 오프(번외편) 드라마로 범국가 위기 방지 특수기관 NTS 요원들이 신에너지원인 TWR을 노리는 비밀조직 아테나에 맞서 싸우는 활약상을 그린다.

수애는 이 드라마에서 NTS 특수요원인 동시에 또 다른 비밀 조직 요원을 오가는 이중스파이 윤혜인을 연기한다. 그간 주로 청순하고 단아한 여성상을 보여준 그는 혜인 역을 통해 강도 높은 액션을 구사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요원으로 변신한다.

그는 “액션 장면을 촬영하는 게 새롭고 재미있다”며 “내게 맞는 옷을 이제야 찾은 것 같다”며 웃었다. 액션 첩보물이긴 하지만 수애는 이 드라마에서 NTS 동료요원 이정우로 출연하는 정우성, 상관 손혁으로 나오는 차승원과 멜로 라인을 형성한다.

첫 촬영을 정우성과 키스 장면으로 시작했다는 수애는 “이제껏 출연했던 영화나 드라마를 통틀어 이렇게 진한 키스씬은 처음”이라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이어 “늦은 밤에 시작했는데 감정과 상황에 몰입하느라 해가 뜨는 줄도 몰랐다”며 “드라마 시작이 좋은 듯하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정우성도 “수애씨가 첫 키스 촬영이라 해서 좋은 기억을 남겨주려 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두 배우와 호흡에 대해 수애는 “우성씨는 너무 잘생긴 외모라 멜로 연기에 몰입이 잘 되고 차승원씨는 카리스마가 느껴져서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두분 다 호흡이 잘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테나 : 전쟁의 여신’은 오는 12월 방송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하나투어 전문판패점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한국능률협회선정 (2005~2010) 6년연속 브랜드파워 1위

브랜드스톡선정 (2005~2010) 6년연속 브랜드스타 1위

한국표준협회선정 (2007~2008) 2년연속 KS-SQI 서비스품질지수 1위

하나투어

예약문의 062)224-0022

광주 무안 직항기로 떠나는 신나는 여행

광주, 무안 장가계 직항

9월 17일~11월 30일 (화,금) 749,000원

◈ 장가계 관광의 하이라이트 ‘천문산 관광포함’
◈ 기본 관광 ALL포함(장가계+원가계+보봉호+용왕동굴)
◈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발맛사지 체험’
◈ 행사 차량에 시원한 ‘생수상시 비치’

황금연휴 대만 전세기

9월 21일! 알찬 상품과 일정을 한번에

타이완 (하루자유+야류+온천) 4일 729,000원

일 정 무안-자유일정-타이페이(3)-무안

특 전
1. 야류해상공원, 중성기념당, 국립고공박물관, 충렬사 관광
2. 대만 야시장, 온천욕, 타이페이 최고 번화가 (서문정거리)에서 한류열풍체험)
3. 샤브샤브, 몽골리안 BBQ등 특식제공
4. 무안공항세, 현지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쟁보험료, 1억원 여행자보험 포함

광주(셔틀버스)출발 북큐슈 초특가

북큐슈 4일 (9월27, 30일, 10월4일 한정)

429,000→389,000원 (9월 30일은 1만원 인상됨)

상품특전
◈ 백제의 건축기술을 엿볼수 있는 우사신궁 관광
◈ 일본3대성중 하나인 구마모토성(熊本成) 관광
◈ 일본의 아기자기함을 느낄수 있는 유후인 긴린코 호수 및 민예거리 관광
◈ 세계 최대 칼데라를 자랑하는 아소 활화산 관광
◈ 쓰루가이드가 한국에서 일본까지 전일정을 함께 합니다.
- 최소출발인원은 10명이상이며, 광주/부산간 국내셔틀버스는 최소16명이상이 되어야만 출발가능합니다.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 광고표시 등에 관한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필수 경비 포함 : 여행자보험(해외 1억원/국내 5천만원), 관광진흥기금, 공항이용료 및 유류할증료, 안내원비용 ■ 선택경비 : 개인적 선택에 따른 현지선택관광은 별도비용임(일정표에 명시), 개별적인 팁 및 비자비용 별도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주)하나투어 ■일반여행업 등록 377호(서울) ■관광 불편신고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5억 보증보험 가입(보험기간 : 매년 2월 1일~다음해 1월 31일) ■최소 출발인원 : 10명 ■숙소 : 4성급 호텔 이상 ■교통편 : 항공 / 버스 ■상기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유류할증료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O날짜는 요금변동있음)